

社說

9월 평양선언, 비핵화·중전으로 가는 디딤돌 되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번째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이 18~20일 평양에서 열린다. 4월 27일, 5월 26일에 이어 남북 정상이 6개월 동안 세 차례 회담하는 것이다.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인 남북의 정상이 이처럼 수시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합의나 선언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제도화하는 강력한 장치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정상화(正常化)'만으로도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분단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가는데 의미는 크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상징적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 회담이어야 한다. 현안인 북미 간 비핵화·평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푸는 창의적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으로서도 세 번째인데, 지난 2000년 김대중-김정일,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 때와 의제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비핵화 문제를 핵심 이슈로 논의한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은 핵 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사항이라며 남북 회담의 의제로 삼는 것을 꺼렸다. 반면 이번 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가 남북관계의 개선 발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전쟁위협 종식과 더불어 3대 의제로 공식화됐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튼튼한 징검다리 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김 국무위원장이 거듭 밝힌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대통령 특사로 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며 '실질적 방안'을 언급한 대목을 주목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했던 대로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수석 협상가'(chief negotiator)로서 역할 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방북을 하루 앞두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데" 이번 회담에서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 국무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국무위원장이 이번 회담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쇠는 달구졌을 때 두들겨야 한다. 비핵화·평화 협상의 카운터파트인 트럼프의 국내 정치 일정은 빠듯하다. 중간 선거(11월 6일)까지는 쌍방이 신뢰를 두텁게 하는 가시적 행동이 나와야 한다. 김 국무위원장은 방북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2021년 1월까지인 트럼프 임기 중 비핵화를 하겠다'고 시간표를 밝혔고, '중전선언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와는 무관하다'고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러한 메시지가 구호만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비핵화·중전선언의 선후(先後)를 둘러싼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 북한이 원하는 '동시 행동 원칙'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내는 데 필요한 언행이다.

청명한 가을에 忠, 孝를 말하다

나일환 시인의 세상읽보기



시인 나일환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새벽을 깨우는 빗방울소리가 참으로 귀한 생각이 든다. 잠시 빗소리에 나를 함몰시킨다. 시인은 가을을 먹고 가을을 불태운다. 시인의 일상은 무척이나 번거롭고 때론 한가하기도 하다. 폭염이 가고 폭풍이 지나더니 장대같은 장대비가 내려 온통 세상을 뒤집으려 법석을 떨다 다시 가을의 본모습을 찾으려 애를 쓰는 애뜻한 날이다.

나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진정한 원초적 원심의 회귀인 것이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서 부터 시작한다. 지금 이 자리는 생의 최종목표지에 얼마만큼 도달했을까? 생존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삶의 과정 또한 어떠한가? 삶에는 도의가 있다. 인간으로 지켜야 할 근본적인 도리인 것이다.

그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효가 그 으뜸이요, 또한 나의 보금자리요, 동족의 터전인 조국에 대한 충이 그 으뜸이다. 효와 충을 바탕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함이 삶의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 주세페 마치니 Scritti politici 는 '조국은 땅이 아니다. 땅은 그 토대에 불과하다.'

조국은 이 토대 위에 건립한 이념이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사상이며, 그 땅의 자식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다. 당신의 형제 중 어느 하나라도 투표권이 없어 나라 일에 자신의 의사를 전혀 반영할 수 없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교육받은 자들 사이에서 교육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한,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일할 수 있고 또한 일하고자 하는데도 일자리가 없어 가는 속에서 하는 일 없이 지내야 하는 한, 당신에게 당신이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조국은 없다.

모두의, 그리고 모두를 위한 바로 그

조국을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 했다. 나의 터전과 그 터전을 지키며 사랑하는 이념의 사랑이 바로 '조국'이라 한다. 조국애가 바로 '충'인 것이다. 지아코모 울리비(Giacomo Ulivi)가 19세 나이로 파시스트 암살단에 의해 붙잡혀 총살당하기 전에 작성한 편지에 보면 '공공선이란 다른 아닌 우리 자신들이다. 그것과 우리를 묶는 것은 애국이니 "우리를 낳고 고통과 눈물 속에서 보살피 주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니 하는 그런 거창하기만 하고 내용이 없는 상투어가 아니다. ...중략...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들의 이익이라는 것과 "공공선"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결국 같은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공공선을 내 것처럼 아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사랑스럽고 중요한 일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일들이, 그리고 이 일들의 성사를 위한 조건들이 바로 이 하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편지를 썼다. 우리는 충과 효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의무나 권리'에 앞서 인간으로써의 기본적인 양심의 발로여야 한다.

가을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시인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향의 산소를 찾아 나섰다. 가을비가 내린다. '효와 충'이란 과연 우리 인간이 지켜내야 하고 진정한 마음의 발로일까? 나를 있게 해주신 조상님의 산소를 찾아 별초를 하고 재사를 올리는 후손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부모님은 항상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 하셨다. 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나도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 효와 충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그들을 설득하여 내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그러나 같은 것

은 한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을 부여받았다는 것이고 나를 키워주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어난 자신의 육신과 이념을 자라게 하고 펼칠 수 있는 보금자리인 내 조국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효와 충'의 시작이 된다. 그러나 효와 충은 누가 알려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이념과 사상을 거부한 인간은 스스로를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산소에 도착하니 여름내 자란 풀이 머리를 넘는다.

영혼이 존재한다면 과연 조상님들은 후손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가을비가 멈추고 가을답지 않은 햇빛이 온몸을 축축이 적신다. 어린 자식 늙이 별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아직은 사람의 도리를 알고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난해도, 명예가 없어도 내조상의 뜻을 살피고 감사와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내가 서있는 내나라 내 땅위에서 내 조국에 대한 '충'에 변함없는 진정 사람다운 인간으로 계속 성장해주길 조상님 전에 기원 드린다.

별초를 마치고 가을 하늘을 바라본다. 정말 투명하고 드높은 내조국의 가을하늘은 참으로 아름답다. 산소를 깨끗하게 별초하고 조상님들의 생전 말씀을 생각하며 또 다른 내 후손들의 생각을 한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문을 유지하고 충과 효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조상님 전에 기도 한다. 별초를 하는 중에 고모부님 내외가 오셨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효과 생각하니 흐뭇하다. 가을을 먹는 시인은 '충과 효'라는 두 단어를 화두로 가을을 사른다.

특자 기고

안전이 위협받는 곳, 119는 어디든 달려갑니다

오늘도 119는 국민이 부르면 밤낮 안 가리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시 급한 마음에 정확한 재난 발생 유형이나 장소를 전달하지 못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일어난다.

위급한 상황에 우리는 얼마나 빨리 119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신고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 그냥 119로 바로 전화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19신고

접수 처리를 하는 종합상황실이나 실질적으로 출동하는 출동부대에서는 신고자의 위치파악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119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는 것으로 신주소(도로명 주소)와 구조소를 구분해 신고하고 구조소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 건물의 상호, 간판, 전화번호 등을 활용해 신고 해야 한다.

119신고 요령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고요령을 숙지한다면 소방차량의 출동 시간을 앞당기고 재난 속에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지금부터 신고요령 미숙으로 인해 출동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119신고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휴대폰으로 신고할 때는 Wi-fi나 GPS를 켜고 신고를 해야 한다.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동통신사 기지국의 위치가 표시되어 반경 500m에서 2km까지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Wi-fi나 GPS를 켜고 신고를 하면 오차를 줄여 소방관들이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고속도로의 경우 IC, 휴게소 그리고 갓길에 200m 마다 설치된 있는 기점표지판 등을 이용해 신고를 하고 어느 방면으로 가고 있던 중인지 정확한 위치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다.

셋째, 산악사고 신고는 산악위치표지판

을 이용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산에는 산악위치표지판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표지판에 있는 위치 및 좌표로 신고를 하면 신속히 구급대와 구조대가 출동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19 앱(App)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이라면 119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든 달려간다. 하지만 꺼져가는 생명을 쫓아 달리는 119가 국민에게 빠르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위에서 알아본 신고요령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분, 일초라도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작은 관심으로 평소에도 119신고요령을 잘 숙지하여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

/김상우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사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회장 김 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직무대리 제갈대중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면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읽는 바른신문

전남도민일보 지역기자안내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광산	부장	고훈석	010-9992-8212	강진	차장	전원빈	010-5470-4550
동구	국장대우	서기만	010-4602-0708	영암	국장대우	김희선	010-3631-1617
북구	부장	김정관	010-9464-2555	무안	차장	박정오	010-5189-5639
목포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무안(남약)	차장	김수형	010-3648-0281
신안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영광	차장	김진	010-9221-0000
나주1	국장대우	김동철	010-3604-2611	여수		오승택	010-2080-6002
나주2	부장	김윤우	010-8835-0299	순천	동부권취재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담양	국장대우	강종연	010-6297-7599	광양		오승택	010-2080-6002
곡성	부국장대우	심섭섭	010-3608-2634	고흥	남부권취재본부장	윤규진	010-2001-8078
구례	국장대우	심건식	010-4624-0005	함평		윤규진	010-2001-8078
보성	국장대우	김홍욱	010-3602-8103	장성	부장	정윤섭	010-3640-6323
보성(별교)	부장	박주홍	010-7135-1518	해남			
완순	차장	남호경	010-3624-6785	완도	국장대우	유대성	010-5007-5983
장흥	국장대우	김정근	010-3601-3517	진도	부장	한길준	010-8265-8848